

2023 년 6 월 22 일

외무성 간부라고 하는 인물과의 ALPS 처리수 취급에 대한 면담 관련 보도에 대해

1. 6 월 21 일, 일부 외신에 의해, 외무성 간부라고 하는 인물이 ALPS 처리수에 관한 리뷰를 실시하는 IAEA 및 제 3 국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IAEA 에 100 만 유로 이상의 정치 헌금을 했다, IAEA 리뷰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다고 정해져 있었다, IAEA 리뷰에 참가하는 제 3 국 전문가는 들러리라고 말했다는 출처 불명의 문서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2. 외무성 간부가 그와 같은 면담을 가진 사실이 없다. 또 문서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IAEA 에 정치 헌금을 했다거나, IAEA 리뷰 보고서의 결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거나, 제 3 국 전문가는 들러리라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3. 이상과 같이 앞서 말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일본 정부는 이처럼 무책임한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참고] 외무성 간부라고 하는 인물이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다룬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rM0mw8gp-Y>

[참고] ALPS 처리수

ALPS(다핵종 제거 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등을 통해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안전 관련 규제 기준치를 확실히 밑돌 때까지 정화한 물. 나아가 ALPS 처리수가 이후 충분히 희석되고, 트리튬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낮춘 다음에 해양 방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끝)